**겜팔이의 안드로이드 세뇌교실 005**

*‘Take me down to the fragment city  
where the code is clean and the views are pretty’*

건물의 벽에 적혀있는 노랫말과는 다르게 이 잿빛도시의 거리는 어수선했으며 은근히 악취가 났다, 더욱이 시민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겁에 질린 듯 했다. 당신은 이 도시가 의문스러웠지만, 조용히 지나가고싶은 마음이 더 컸다. 그 때였다.

“갈 곳을 잃었군, 이방인. 마치 이 도시처럼 말이야.”

“단지 지나가는 중입니다… 그런데 노인장, 이곳은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운 도시군요.”

“이 도시를 장악한 Activity가 실종되고 나서, 그 수하였던 4개의 Fragment들이 자기 멋대로 조직을 만들어 도시를 망치고 있지. 이 곳의 코드와 뷰마저 Fragment들에게 분열되었네. 하지만 Context없이 이 도시는 존재할 수 없네... 여기는 무너지고 있어.”

“...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.”

**과제)**당신은 Fragment City를 도울 자신이 있었다.

* 4개의 Fragment를 Tab으로 가지는 FragmentCity 프로젝트를 작성하자.
* MainActivity 생성
  + 상단에는 TabLayout, 하단에는 ViewPager를 가지며 둘은 연동되어 있다.
  + 용도에 맞는 어댑터를 상속받아 구현하며 ViewPager에 Fragment를 제공.
    - getPageTitle 메서드를 Override하여 각 Fragment의 이름을 제공.
  + 4개의 Fragment를 가지며, ViewPager로 각 Fragment를 이동할 수 있다.
    - Naughty Hearts (보라색 바탕)
    - Lazy Spades (노란색 바탕)
    - Greedy Diamonds (파란색 바탕)
    - Bloody Clubs (붉은색 바탕)

“이럴수가... 오래전 프로그래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... 자네가 그 프로그래머인가?”

“... 도와주었으니, 저는 가보겠습니다.”

노인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는 듯 연거푸 말했다.

“오.. 맙소사… 자네가 이 도시를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로 돌릴 수 있을게야..! 조금만 더 도와줄 수는 없겠나!?”